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 연구 :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Neighborhood Rela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s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North and South Regions in Gyeonggi Province

이 경 영**·정 문 기***

Lee, Kyung-Young·Jeong, Moon-Gi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 V. 결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중요하게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웃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1인 가구 2,2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지역사회

*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PLUS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관리번호 21B20151413334)이며,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경기연구원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이용하였다. 또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울대학교, 2월 14일~15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접수일: 2019. 10. 15, 심사기간: 2019. 10. 15~ 11. 18, 게재확정일: 2019. 11. 18.

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인하여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교류공간 중에서는 생활문화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이, 보행환경 내에서는 상가지역 보행여건, 재난 및 사고 안전성이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유의계수 값을 기준으로 보행환경의 요소들이 교류공간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러한 분석 결과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제고 시 고려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 주제어: 1인 가구, 이웃관계, 지역 간 비교

This study examined factors of neighborhood rela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asking whether these factors differed between North and South Regions in Gyeonggi Province. We analyzed the 「The First Survey of Quality of Life in Gyeonggi Province」 and employ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satisfaction of community space and pedestrian environment had positive effect on neighborhood relations. Specifically, living-cultural facilities in community space and walking conditions, safety from disasters and accidents in pedestrian environment have been confirmed as important factors. And the effect of factors in pedestrian environment on neighborhood relations was greater than community space.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neighborhood relations differed between North and South of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 for figuring out considerations in enhancing neighborhood relations of single households.

□ Keywords: Single-person Household, Neighborhood Relations, Regional Comparison

I. 서론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해 이들의 삶의 질에 이웃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성민, 2018). 더불어, 이웃관계는 지역 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현진, 2010; 노정민, 2013; 이경영 외, 2018; 한성민·이숙중, 2018; Alder & Kwon, 2000; Putnam, 1993). 이는 1인 가구에게 이웃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가구 구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과거에는 4인 가구가 가장 전형적인 가구 구성이었던 데 비해, 2010년 이후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기경묵, 2012). 특히,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는 인구동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¹⁾. 이와 관련해, 변미리(2015)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러한 배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구 구성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기도 역시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약 103만 명으로 전체 일반가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23만 명에서 약 80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1인 가구 수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중인 '카네이션 하우스'는 공동체 기능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친목도모의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데일리팝, 2018.04.20.²⁾).

1인 가구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독거노인 및 청년 1인 가구의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1인 가구에 관한 논의에서는 소득이나 주거문제, 주관적인 삶의 질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었고, 이웃관계는 하나의 영향요인으

1) 통계청에서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는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였으나, 2015년에는 27.2%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16년 뒤인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3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5> (검색일: 2019.01.30.)

로만 취급되었다(강은택 외, 2016; 이은희 외, 2018; 한성민, 2018). 즉,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목하였으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웃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 내 교류공간과 보행환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고은정, 2018; 김영제·한상일, 2008; 신화경·조인숙, 2012; 이경환, 2008; 정유진, 2014; 조상현, 2004; Jeanne & Susan, 1996; Jun & Hur, 2015; Lund, 2002). 즉, 이웃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이웃 간의 '접촉'이나 '마주침'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의 교류공간과 도보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류공간이나 보행환경 등은 모두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한다는 점에 기인하면 이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결국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규명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급증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고, 경기도에서 실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와 이웃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 간 비교를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해 지역 내 시설 현황 및 도시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체 표본 20,000명 중 1인 가구만 따로 추출하여 2,268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SPSS v20.0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 검증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1인 가구와 이웃관계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통계청, 2005). 과거에는 전체 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약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³⁾에 따르면 1995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 불과했으나, 2017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8.6%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고립'이다. 즉,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이웃과의 만남이나 접촉의 기회가 적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 국내의 주요 도시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관련 사업들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곧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성에 기인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웃관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웃(neighbor)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리적·공간적 근접성', '관계 형성', '친밀성' 등을 공통적인 요소로 제시한다(정유진, 2014; 김택규·정석, 2016; Bergel, 1975). 구체적으로 정유진(2014:15)은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대면접촉을 하게 되고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고, 김택규·정석(2016: 74)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호 간에 친밀성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Bergel(1975:478)은 "지역적으로 근접하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는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으로, 상호 간에 면식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웃을 '지리적·공간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성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보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 인구 자료

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이웃관계’(neighborhood relations)라고 이해하였다.

그간 학계에서 이웃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웃관계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가까이 거주하는 이웃들과 만나고 인사를 함으로써 교류가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이웃 간에 인사나 대화를 통한 정보공유, 비공식적인 상호부조 등 일상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이후 이러한 교류가 잦아지고 이웃 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김현진, 2010; 노정민, 2013; 정유진, 2014).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간의 신뢰에 기초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역시 잘 구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웃관계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이경영 외, 2018; 한성민·이숙중, 2018; Alder & Kwon, 2000; Putnam, 1993). 주요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회복을 독거노인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노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세계경제, 2018.10.07.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웃관계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 살펴볼 것이다.

2. 이웃관계의 영향요인

이웃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의 물리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류공간 및 도보 이동을 유발하는 보행환경 등이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류공간과 이웃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은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유사한 생활패턴을 가진 주민들 간에는 동일한 공간을 통해서 접촉 빈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증

4) 세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10305>(검색일: 2019.01.30.)

가하게 된다(정유진, 2014). 따라서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교류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조상현(2004)은 이웃 교류의 장은 상호 간에 유대를 형성하고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정유진(2014) 역시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역 및 그 주변의 공간을 '주기적' 또는 '때때로' 이용함으로써 상호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교류공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므로, 이웃관계 역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은희(2012)는 도시주거지역의 커뮤니티 빌딩(community building)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지역 주민의 신뢰 및 사회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 빌딩의 형성과 관련해 주민 간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았다. 또한, 신화경·조인숙(2012)은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교류 공간을 통해 이웃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웃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 공동체 해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웃관계 제고를 위해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 즉 교류공간에 대한 개선이 제시되고 있다(송명규, 2009; 신화경·조인숙, 2012; 진미윤 외, 2001; 천현숙, 2001).

다음은 보행환경에 대한 논의이다. 보행환경과 관련한 도시계획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구호 아래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환경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백수진·유석연, 2014). 일찍이 서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보행환경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보행친화적 환경이 주민들 간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Jeanne & Susan(1996)의 연구에서는 보행환경을 포함한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Lund(2002)는 전통적인 근린 지역(traditional neighborhood)과 자동차 중심의 근린 지역(automobile-oriented neighborhood)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자동차 중심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지역의 거주민이 이웃과의 관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이 걸을수록 이웃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이는 이웃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보행성(walkability)과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Jun & Hur(2015)는 보행성과 이웃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보행성이 높을수록 이웃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제·한상일(2008)의 연구에서는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성이 주민 간의 상호 작용이나 유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은정(2018)의 연구에서도 보행환경의 질이 알고 지내는 이웃의 수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경환(2009)의 연구에서는 이웃관계와 유사하게 커뮤니티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안전하고 질 좋은 보행환경을 통해 지역 주민이 더 많이 걷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커뮤니티 의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주거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고려되고 있다. 주거특성과 관련해서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등이 이웃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자 간에 이웃관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대기·홍동식, 1982; 김수련, 1989). 이는 아파트의 경우 수직·고층적인 구조로 인해 주민 간의 접촉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정유진, 2014). 또한, 자가 거주자의 경우 주거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높아, 임차 거주자에 비해 이웃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윤복자 외, 1989). 끝으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 간의 친밀도가 증가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현숙, 2011; 진미운 외, 2001).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광범위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선·박순진, 1999; 이은혜·유계숙, 1999). 이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주거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의 증가는 이웃과의 교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대기·홍동식, 1982; 최성기, 1984).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먼저 강대기·홍동식(1982), 김동우(1985) 등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이웃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간의 의존관계로 인해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과 이웃관계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는 이웃관계 역시 자원과 영향력의 교환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유진, 201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교류공간, 보행환경, 주거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을 주요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주거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기초하면 교류공간이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의 만족도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이웃관계의 영향요인에 대한 지역 간 비교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웃관계의 영향 요인에 대해 경기 북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지역 간 비교를 실시한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격차는 이미 언론 및 학계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선거 때마다 ‘분도’(경기 북부 독립론)에 대한 논의가 자주 거론된다(뉴스원, 2019. 04. 27.5). 특히, 경기 북부의 거주민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와 북부를 분리하여 각자 별도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장영호(2015)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복지, 재정,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의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경기 북부에 포함된 지역들이 남부 지역에 비해 발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희창·박희봉(2006)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가 미발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북부 지역 내에서도 서울과의 인접성을 기준으로 발전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경우 남부에 비해 시설 인프라와 재정자립도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회 외, 2018). 한편, 삶의 질에 대해서는 이웃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강은택, 2016; 김소은·정수정, 2017; 변미리, 2015; 한성민, 2018), 이웃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희창·박희봉, 2005). 요컨대,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웃관계의 수준은 이러한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곧 이웃관계 영향요인의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웃관계에 대해 교류공간과 보행환경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때, 교류공간이나 보행환경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 간에 물리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면 이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경기 북부와 남부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물론 지역 내 모든 물리적 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류공간’의 기능을 담당하는 일부 시설 및 ‘보행환경’과 관련성이 높은 도시화 수준 등을 통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먼저, 교류공간과 관련한 시설 현황으로는 문화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았다. 다

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961371>
(검색일: 2019.11.03.)

수의 연구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 공동체 강화를 제시한다. 즉,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이 주민 간의 유대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나도삼, 2002; 이승미, 2010).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양지은, 2016). 아래의 <표 1>은 경기 북부 및 남부의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경기 북부 및 남부의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⁶⁾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기준: 2017년, 단위: 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기준: 2016년, 단위: 개)		
경기 북부 평균	6.84개		경기 북부 평균	30.57개	
경기 남부 평균	5.94개		경기 남부 평균	16.79개	
상위 10개 시군구			상위 10개 시군구		
권역	시군구	개수	권역	시군구	개수
남부	과천시	20.86	북부	포천시	56.86
남부	여주시	20.54	남부	양평군	46.69
남부	양평군	16.51	북부	가평군	41.63
북부	가평군	15.88	북부	연천군	41.39
북부	연천군	11.01	북부	동두천시	38.67
북부	포천시	9.15	남부	여주시	36.75
북부	파주시	8.22	남부	안성시	36.09
북부	동두천시	6.18	북부	양주시	31.14
북부	양주시	6.13	북부	파주시	23.68
남부	안성시	6.02	북부	의정부시	23.04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재구성)

먼저,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7년 기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경기 북부가 평균 6.84개, 경기 남부가 평균 5.94개로 나타났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개 지역으로는 경기 북부 중 가평군(15.88개), 연천군(11.01개), 포천시(9.15개), 파주시(8.22개), 동두천시(6.18개), 양주시(6.13개) 등 6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경기 남부 중에서는 과천시(20.86개), 여주시(20.54개), 양평군(16.51개), 안성시(6.02개) 등 4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2016년 기준)는 경기 북부가 평균 30.57개, 경기 남부

6) 경기 북부(10개):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군, 연천군, 가평군
경기 남부(21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 평균 16.79개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시군구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경기 북부 중에서는 포천시(56.86개), 가평군(41.63개), 연천군(41.39개), 동두천시(38.67개), 양주시(31.14개), 파주시(23.68개), 의정부시(23.04개) 등 7개 지역이 있고, 경기 남부 중에서는 양평군(46.69개), 여주시(36.75개), 안성시(36.09개) 등 3개 지역이 있다. 이처럼 문화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시설 수와 관련해서는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보행환경과 관련해 경기 북부와 남부의 도시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백수진·유석연(2014)과 Lund(2002) 등의 연구에서는 도시화의 진행은 보행 중심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환경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도시화 정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보행 환경의 조성이 자동차도로의 구축보다 우선순위에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전체 면적 중 도시지역⁷⁾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도시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 자료에 기초해 경기 북부와 남부의 전체 면적 중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시와 구리시만 전체 면적 중 도시지역의 비중이 100%였으나, 남부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등에서 도시지역의 비중이 100%로 확인되었다. 지역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도 경기 북부가 24.3%, 경기 남부가 40.7%로 나타나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도시화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김은경 외, 2016; 김제국 외, 2005; 이희창, 2001; 허훈·김종래, 2008)에 따르면, 이는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불어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 및 경기 남부의 발전정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부 누리는 하였으나, 동시에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 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경기 남부 지역과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7) 도시지역은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관리·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표 2〉 경기 북부 및 남부의 도시지역 면적 비중

행정구역		전체 면적(km ²)	도시지역 면적(km ²) (2017년 기준)	도시지역 비중(%) ⁸⁾
경기 북부		3,964.9	964	24.3
경기 남부		5,905.2	2,405.3	40.7
전체 면적 중 도시지역이 100%를 차지하는 시군구				
북부	의정부시	81.6	81.6	100.0
북부	구리시	33.3	33.3	100.0
남부	수원시	121.1	121.1	100.0
남부	성남시	141.8	141.8	100.0
남부	안양시	58.5	58.5	100.0
남부	부천시	53.4	53.4	100.0
남부	광명시	38.5	38.5	100.0
남부	안산시	148.1	148.1	100.0
남부	과천시	35.8	35.8	100.0
남부	오산시	42.7	42.7	100.0
남부	시흥시	135.1	135.1	100.0
남부	군포시	36.3	36.3	100.0
남부	의왕시	54.00	54.00	100.0
남부	하남시	93.1	93.1	100.0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재구성)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시와 구리시만 전체 면적 중 도시지역의 비중이 100%였으나, 남부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등에서 도시지역의 비중이 100%로 확인되었다. 지역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가 24.3%, 경기 남부가 40.7%로 나타나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도시화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김은경 외, 2016; 김제국 외, 2005; 이희창, 2001; 허훈·김종래, 2008)에 따르면, 이는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불어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 및 경기 남부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부 누리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경기 남부 지역과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물론 시설 현황 측면에서 인구 수를 고려하면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시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북부 지역이 남

8) 도시지역 비중은 전체 면적 대비 도시지역 면적 비중을 의미한다.

부 지역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든 물리적 특성에 대해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일부 측면에서는 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교류공간이나 보행환경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반드시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해서, 또는 도시화 정도가 높다고 해서 주관적 만족감 역시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그간 학계에서 이웃관계를 다룬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지만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나 1인 가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강은택 외, 2016; 김소은·정수정, 2017; 변미리, 2015; 한성민, 2018)에서는 여전히 이웃관계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1인 가구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주변 이웃과의 관계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본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경기 북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지역 간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교류공간이나 보행환경 등 지역사회 물리적 특성이 이웃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역 간에 물리적 특성이 다르다면 이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실제로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는 일부 시설현황이나 도시화 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곧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교류공간이나 보행환경 등의 물리적 특성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러한 요인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III. 연구 설계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⁹⁾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도민 삶의 수준에 대해 주관적 응답을 파악함으로써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경기연구원, 2017). 해당 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이웃 관계, 교류공간 만족도, 보행환경의 질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주거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는 표본설계 시 1차적으로 지역별 할당을 실시하고, 지역 내에서는 주택유형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층화표본 할당을 진행하였다. 이때, 가구원 수는 1인, 2인, 3인, 4인 이상 가구로 층화 구분을 하였다(이병호 외, 2016). 이는 본 자료에 경기도 거주 1인 가구의 특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 가구와 관련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수 20,000명 중 1인 가구만 따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분석 시 사용한 자료는 전체 2,268명(북부 698명(30.8%), 남부 1,570명(69.2%))이다. 구체적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북부에서는 남자(335명, 48.0%) 대비 여자(363명, 52.0%)가 더 많았으나, 남부에서는 남자(837명, 53.3%)가 여자(733명, 46.7%)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북부와 남부 모두 60대 이상(42.8%, 38.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북부에서 더 높았다. 월평균 소득은 북부에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38명, 34.1%)이 가장 많았으나, 남부에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512명, 32.6%)이 가장 많았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 비중은 남부(614명, 39.1%)가 북부(186명, 2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점유형태의 자가 비중은 북부(303명, 43.4%)가 남부(594명, 37.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거주기간은 북부에서는 10년 이상(215명, 30.8%)이 가장 높았으나, 남부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431명, 27.5%)이 가장 높았다.

9)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는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 7월 1일~8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가구정보, 기본사항, 가족, 주거, 고용, 가계, 교통, 생활환경 및 안전, 사회통합, 웰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경기연구원 gri.re.kr).

〈표 3〉 표본의 특성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사례 수 (명)	비율(%)	사례 수 (명)	비율(%)
전체		698	100.0%	1,570	100.0%
성별	남자	335	48.0%	837	53.3%
	여자	363	52.0%	733	46.7%
연령대	2-30대	236	33.8%	564	35.9%
	4-50대	163	23.4%	404	25.7%
	60대 이상	299	42.8%	602	38.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1	17.3%	178	11.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38	34.1%	453	28.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1	30.2%	512	32.6%
	300만원 이상	128	18.3%	427	27.2%
주택유형	아파트	186	26.6%	614	39.1%
	아파트 외	512	73.4%	956	60.9%
점유형태	자가	303	43.4%	594	37.8%
	자가 외	395	56.6%	976	62.2%
거주기간	3년 미만	170	24.4%	419	26.7%
	3년 이상 5년 미만	112	16.0%	333	21.2%
	5년 이상 10년 미만	201	28.8%	431	27.5%
	10년 이상	215	30.8%	387	24.6%

2.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변수들을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이웃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김택규·정석, 2016; 이경영 외, 2018; 장동현·박수빈, 2013)에서는 이웃 간의 상호작용, 신뢰도, 인지정도 등을 통해 이웃관계의 친밀성을 측정하였다.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웃 간의 상호작용 및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교류 공간에 대해서 정유진(2014)은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주민센터), 경로당, 문고 등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상용품 구매 장소, 공공기관,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물론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만족수준에 대한 응답 기준이 물리적 측면 보다는 서비스 측면이 고려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 만족도 역시 물리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시설에 대한 이용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교류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보행환경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영제·한상일, 2008; 고은정, 2018; 이경환, 2009; Jun & Hur, 2015)에 기초하여 주거지 내에서 도보를 통한 이동이 만족스러운지, 주거지역 및 상가지역의 보행여건은 양호한지,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¹⁰⁾. 그밖에 주거 특성에 대해서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거주지역 항목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등을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 측정된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0)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를 제외한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은 별도의 평균 변수를 생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항목들을 해당 카테고리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의 개별 항목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 내 항목 간의 타당성(요인적재량 0.5, 고유값 1 이상) 및 신뢰도(0.6 이상)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부록 1〉). 이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측정항목들을 각각 이웃관계,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으로 구분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요인과 측정항목 간에 통계적인 측면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변수에 대한 구성

구분		항목	비고
이웃관계 ¹¹⁾		- (상호작용)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종종 받는 편이다 - (상호작용) 지역주민들을 종종 도와주는 편이다 - (신뢰) 지역주민들은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다.	리커트 4점 척도 세 항목에 대한 평균 산출
교류공간		일상용품 구매 장소에 대한 만족도 (전통시장, 슈퍼, 마트 등) 공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시청,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공공도서관, 문화원, 영화관, 박물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경로당, 복지관 등)	리커트 4점 척도
보행 환경		(도보 이동성) 도보를 통한 이동 (주거지역 보행여건) 주거지역 보행로 (상가지역 보행여건) 상가지역 보행로 (안전성)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리커트 4점 척도
주거 특성	주택유형	- ① 단독주택, ② 연립주택(빌라), ③ 다세대/다가구주택, ④ 아파트, ⑤ 오피스텔(주상복합), ⑥ 공동주택, ⑦ 기타	① 아파트, ② 아파트 외로 구분
	점유형태	- ① 자가, ② 전세, ③ 반월세/월세, ④ 무상(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① 자가, ② 자가 외로 구분
	거주기간	- 현재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단위: 년
	거주지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	① 경기 북부, ② 경기 남부로 구분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응답자 성별	
	연령	응답자 출생년도	나이로 환산(세)
	월평균 소득	최근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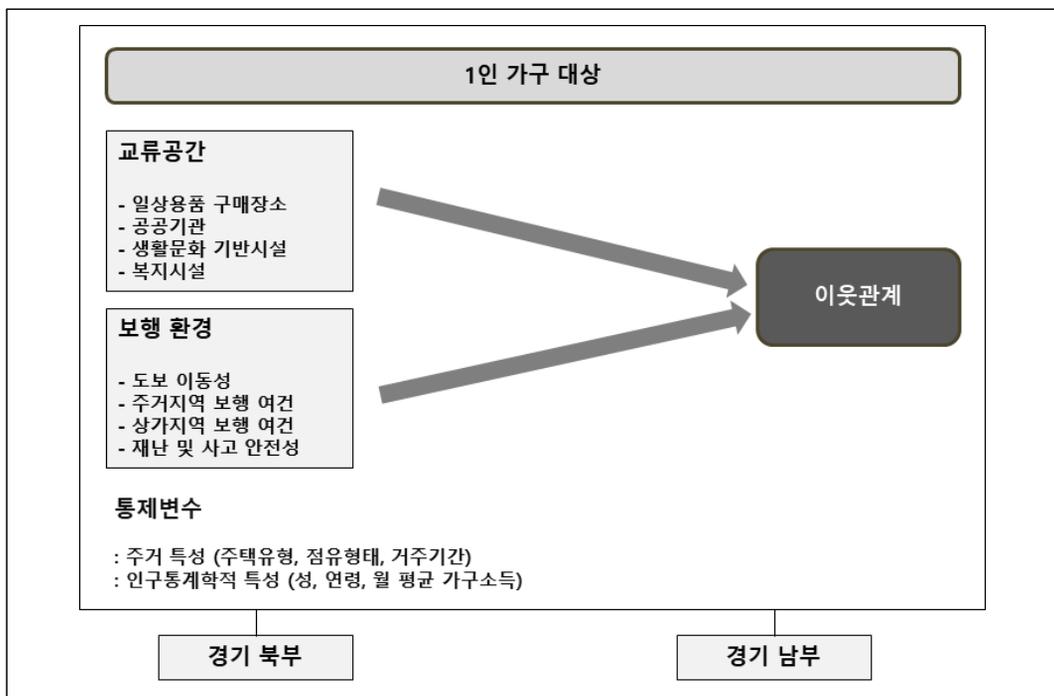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지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웃관계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

11) 세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값이 0.853으로 수용기준(0.6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연구를 검토하여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주거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교류공간, 보행환경 등이 모두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이러한 물리적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웃관계의 영향요인에 대한 지역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도식화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응답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경기 북부 및 남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기준으로 차이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는 거주 지역별로 이웃관계 및 교류공간,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전체 및 지역별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척도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 등 물리적 속성들은 주거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통제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여 다중회귀분석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분석을 단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전체 모형에서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로 투입함으로써 이웃관계에 대한 거주지역 간 비교의 타당성을 중복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설 1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 거주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만약 거주지역 변수가 이웃관계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면, 다음 단계인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비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 거주자와 남부 거주자를 나누어 각각에 대한 분리된 모델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 이웃관계의 영향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전체 모델 및 지역별 분리 모델을 통한 분석 시에는 모두 주거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고려한 상태에서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의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검증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이 거주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 검증은 변수의 속성을 기준으로 연속형 변수는 독립표본 t검정을,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종속변수인 이웃관계는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는 2.66점, 경기 남부는 2.51점으로 나타나 경기 북부 거주민의 이웃관계가 남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교류공간 내에서는 일상용품 구매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 남부가 3.12점으로 경기 북부 3.06점에 비해 높았다. 앞서 지역

간 시설현황에서 살펴 본 생활문화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은 두 지역 간에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행환경의 요소 중에서는 도보 이동성과 재난 및 사고 안전성이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 이동성의 경우에는 경기 북부가 2.99점으로 경기 남부 2.95점에 비해 높았고, 반대로 재난 및 사고 안전성은 경기 남부가 2.81점으로 경기 북부 2.74점에 비해 높았다.

〈표 5〉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검증

		거주 지역		χ^2 / t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웃관계		2.66	2.51	$t=-4.685^{***}$	
교류 공간	일상용품 구매 장소	3.06	3.12	$t=2.459^{**}$	
	공공기관	2.89	2.88	$t=-0.450$	
	생활문화 기반시설	2.65	2.69	$t=1.077$	
	복지시설	2.84	2.86	$t=0.473$	
보행 환경	도보 이동성	2.99	2.95	$t=-1.664^*$	
	주거지역 보행 여건	2.95	2.91	$t=-1.603$	
	상가지역 보행 여건	2.85	2.88	$t=1.196$	
	재난 및 사고 안전성	2.74	2.81	$t=2.277^{**}$	
주거 특성	주택유형	아파트	26.6%	39.1%	$\chi^2=32.860^{***}$
		아파트 외	73.4%	60.9%	
	점유형태	자가	43.4%	37.8%	$\chi^2=6.282^{**}$
		자가 외	56.6%	62.2%	
	거주기간	10.4	8.3	$t=-3.62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48.0%	53.3%	$\chi^2=5.472^{**}$
		여자	52.0%	46.7%	
	연령(세)	53.1	51.5	$t=-1.846^{**}$	
	월평균 소득(만원)	196.2	228.3	$t=6.098^{***}$	

* $p<0.1$, ** $p<0.05$, *** $p<0.01$

한편, 주거 특성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중은 경기 남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유형태 중 자가 비중은 경기 북부가 더 높았다. 또한 거주기간은 경기 북부가 평균 10.4년으로 경기 남부 8.3년에 비해 길었다. 성별은 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평균 연령은 북부가 53.1세로 남부 51.5세에 비해 높았다. 월평

균 소득은 남부가 228.3만원으로 북부 196.2만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웃관계의 수준이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주며,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 역시 두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이웃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이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지 등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및 지역 간 비교

1)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먼저 가설 1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기 북부 및 남부 거주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모델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교류공간 중 생활문화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보행환경 중 상가지역 보행여건 및 재난 및 사고 안전성이 이웃관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류공간 중 생활문화 기반시설($B=0.047$, $t=2.102^{**}$) 및 복지시설($B=0.048$, $t=1.967^{**}$)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웃관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류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신화경·조인숙, 2012; 이은희, 2012; 정유진, 2014; 조상현, 2004)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public space)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이코노미 조선 272호, 2018.10.29.¹²⁾).

12)

이코노미

조선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5952
(검색일: 2019.01.30.)

〈표 6〉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변수		B (S.E)	t
독립변수	교류 공간		
	- 일상용품 구매 장소	-0.18 (0.027)	-0.667
	- 공공기관	-0.24 (0.024)	-0.973
	- 생활문화 기반시설	0.047 (0.022)	2.102**
	- 복지시설	0.048 (0.024)	1.967**
	보행 환경		
	- 도보 이동성	0.037 (0.029)	1.268
	- 주거지역 보행여건	0.031 (0.031)	1.013
- 상가지역 보행여건	0.065 (0.024)	2.744***	
- 재난 및 사고 안전성	0.086 (0.024)	3.559***	
통제변수	주택유형 (ref. 아파트)		
	- 아파트 외	0.155 (0.030)	5.101***
	점유형태 (ref. 자가 외)		
	- 자가	0.068 (0.036)	1.869*
	거주기간	0.004 (0.001)	2.549**
	거주지역 (ref. 남부)		
	- 북부	0.104 (0.031)	3.376***
	성별 (ref. 남자)		
- 여자	0.077 (0.028)	2.727***	
연령	0.010 (0.001)	9.044***	
월평균 소득	0.000 (0.000)	-0.407	
상수항		0.911 (0.135)	6.746***
표본 수		2,268	
모형 적합도	F	28.637***	
모형 설명력	R ²	0.160	
	adj R ²	0.155	

*p<0.1, **p<0.05, ***p<0.01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류공간 중 생활문화 기반시설(B=0.047, t=2.102**) 및 복지시설(B=0.048, t=1.967**)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웃관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류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신화경·조인숙, 2012; 이은희, 2012; 정유진, 2014; 조상현, 2004)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

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public space)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이코노미 조선 272호, 2018.10.29.13).

다음으로 보행환경 중에서는 상가지역 보행여건($B=0.065$, $t=2.744^{***}$), 재난 및 사고 안전성($B=0.086$, $t=3.559^{***}$)이 좋을수록 이웃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선행연구(고은정, 2018; 김영제·한상일, 2008; 이경환, 2009; Jun & Hur, 2015; Lund, 2012)에서도 보행환경의 질은 이웃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유의계수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상가지역 보행여건, 재난 및 사고 안전성 등 보행환경의 요소들이 교류공간에 비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이웃의 범위와 관련해 해석이 가능하다. 가령 공공장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보다 도보 이동을 통해 마주칠 수 있는 범위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보행환경이 교류공간보다 이웃관계에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 중 일부 요소들이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밖에 통제변수 중에서는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 대비 아파트 외 유형 거주자가, 자가 외 대비 자가 거주자가,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웃관계가 양호하였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이웃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이웃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강대기·홍동식 외, 1982; 김동우, 1985; 정유진, 2014)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에 대한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비교에 앞서 거주 지역이 이웃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이웃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남부 지역을 참조변수로 하여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역은 이웃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기 남부 거주자에 비해 경기 북부 거주자($B=0.104$, $t=3.376^{***}$)의 이웃관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본 연구의 다음 단계인 지역 간 비교에 대한 타당성을 증대한다.

2)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에 대한 지역 간 비교

앞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13) 이코노미 조선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5952(검색일: 2019.01.30.)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제시하였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분리된 모델을 통해 각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영향요인에 대한 지역 간 비교

변수		경기 북부		경기 남부	
		B (S.E)	t	B (S.E)	t
독립 변수	교류 공간				
	- 일상용품 구매장소	0.023 (0.046)	0.500	-0.040 (0.034)	-1.169
	- 공공기관	0.012 (0.041)	0.282	-0.041 (0.030)	-1.366
	- 생활문화 기반시설	0.059 (0.035)	1.665*	0.044 (0.029)	1.535
	- 복지시설	0.033 (0.042)	0.796	0.051 (0.030)	1.674*
	보행 환경				
	- 도보 이동성	-0.007 (0.050)	-0.131	0.063 (0.036)	1.767*
	- 주거지역 보행 여건	0.006 (0.054)	0.103	0.047 (0.038)	1.259
통제 변수	- 상가지역 보행 여건	0.121 (0.039)	3.130***	0.029 (0.030)	0.987
	- 재난 및 사고 안전성	0.054 (0.040)	1.346	0.106 (0.031)	3.471***
	주택유형 (ref. 아파트)				
	- 아파트 외	0.179 (0.056)	3.201***	0.150 (0.036)	4.114***
	점유형태 (ref. 자가 외)				
	- 자가	0.206 (0.061)	3.386***	0.004 (0.045)	0.092
	거주기간	0.002 (0.002)	1.156	0.004 (0.002)	2.325**
	성별 (ref. 남자)				
- 여자	0.077 (0.049)	1.576	0.083 (0.035)	2.387**	
연령	0.008 (0.002)	4.279***	0.011 (0.001)	8.146***	
월평균 소득	0.000 (0.000)	0.888	0.000 (0.000)	-0.666	
상수항		0.765 (0.239)	3.207***	0.980 (0.165)	5.955***
표본 수		698		1,570	
모형 적합도	F	10.598***		20.042***	
모형 설명력	R ²	0.178		0.153	
	adj R ²	0.162		0.145	

*p<0.1, **p<0.05,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류공간 중 생활문화 기반시설(B=0.059, t=1.665*)은 경기 북부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앞서 각 지역의 물리적 현황을 비교했을 때, 북부가 남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에서 이웃관계에 대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복지시설은 경기 남부에서만 이웃관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51$, $t=1.674^*$). 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경기 남부 지역의 독거노인 관련 시설이 교류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말순, 2000).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세규, 2015). 따라서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행환경과 관련해서는 경기 북부에서는 상가지역 보행여건이($B=0.121$, $t=3.130^{***}$), 경기 남부에서는 도보 이동성($B=0.063$, $t=1.767^*$), 재난 및 사고 안전성($B=0.106$, $t=3.471^{***}$)이 이웃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선 도보이동성 및 안전성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도시화 정도와 관련해 해석이 가능하다. 즉, 백수진·유석연(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자동차 중심의 환경 구축이 우선시되어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성의 경우에는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건물 붕괴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아 남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가지역 보행여건은 경기 북부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경기 북부의 경우 상가지역 자체가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각각의 요인이 해당 지역에서 이웃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해당 요인이 한 수준만 증가 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비해 이웃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을 기준으로 분리한 모델에서도 유의계수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앞서 <표 6>의 전체 모델과 마찬가지로 보행환경의 요소들이 교류공간에 비해 더 큰 영향력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웃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요인을 <표 6>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유의계수 값이 증가했다는 점, 특히 도보 이동성의 경우 지역 구분을 하지 않은 <표 6>에서는 이웃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 구분을 한 <표 7>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은 이들 요소가 지역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¹⁴⁾. 끝으로, 통제 변수 중에서는 점유형태, 거주기간, 성별 등에서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1인

14) 지역 구분을 하지 않은 전체 모델의 <표 6>에서는 생활문화 기반 시설의 B값이 0.047이었으나, 지역 구분을 한 분리 모델의 <표 7>에서는 B값이 0.059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복지시설에 대한 B값은 0.048에서 0.051로, 상가지역 보행여건은 B값이 0.065에서 0.121로, 재난 및 사고 안전성은 B값이 0.086에서 0.106으로 증가하였다.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를 뒷받침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교류공간 및 보행환경 등 이웃관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공간 중 생활문화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보행환경 중 상가지역 보행여건, 재난 및 사고 안전성 등은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고은정, 2018; 김영제·한상일, 2008; 신화경·조인숙, 2012; 이경환, 2008; 정유진, 2014; 조상현, 2004; Jeanne & Susan, 1996; Jun & Hur, 2015; Lund, 2002)과 동일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의계수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별 요인 중에서는 상가지역 보행여건, 재난 및 사고 안전성 등 보행환경의 요소가 미치는 영향력이 교류공간의 요소들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이웃의 범위와 관련이 있으며, 도보이동으로 마주칠 수 있는 보행환경 범위 내의 사람들을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이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은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교류공간 중 생활문화 기반시설은 북부에서, 복지시설은 남부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보행환경 중 상가지역 보행환경은 북부에서, 도보 이동성 및 재난 및 사고 안전성은 남부 지역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웃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소들은 경기 북부와 남부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 지역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이웃관계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유의계수 값이 증가하였다. 특히, 도보 이동성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분리된 모델에서만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거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이웃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거특성에서는 아파트 대비 아파트 외 유형 거주자가,

자가 외 대비 자가 거주자가,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웃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이웃관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강대기·홍동식 외, 1982; 정유진, 2014; 진미운 외, 2001; 천현숙, 2011)과도 동일한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관련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이웃관계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1인 가구에 있어 이웃관계는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개선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강은택, 2016; 김소은·정수정, 2017; 변미리, 2015; 한성민, 2018)에서 이웃관계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웃관계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향후 이들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 및 이에 대해 영향요인이 지역 간에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논의에서는 보유 시설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였다면(이외회 외, 2018; 이희창·박희봉, 2006; 장영호,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의 인식 역시 지역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물리적 요인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차이검증을 통해 비물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이웃관계 역시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오늘날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지역의 물리적·경제적 요인은 물론 복지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의 기본수요 측면까지도 포함한다(우영진 외, 2007). 이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1인 가구의 이웃관계 제고를 위해서는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1인 가구의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의 요소들이 교류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현 외(2006)는 보행친화적 환경에 대해 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및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행로를 정비하고, 지역 내 편의시설 등에 대한 도보 이동 접근성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 도로·교통 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이데일리, 2019.01.09.15). 둘째, 1인 가구의 이웃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경기 북부 지역은 지역 내 생활문화 시설 등에 대한 노후화 정도를 점검하여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수를 진행하고, 상가지역 주변의 보행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이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 남부 지역은 보행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국토교통부, 2018).

한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요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물리적 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이로 인해 이웃 관계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개별 물리적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만족수준에 대한 응답 기준이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치중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쳤으나 본 연구의 원천 자료와 관련한 부분이기여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물리적인 요소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지역 행사나 축제, 교육프로그램 등 주민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비물리적 요소들도 이웃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논의에 포함된 연령별, 소득수준 외에도 개인 및 가구특성의 편차가 이웃관계에 긍정-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 외에도 가구특성의 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대기·홍동식. (1982).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근린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123-140.
- 강은택·강정구·마강래. (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3-23.
- 고은정. (2018).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다양성,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도시연구』, 19(2): 73-86.
-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세종
- 기경목. (2012).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규모 축소 가능성 진단」. 2012년 4호. 서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김동우. (1985).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현대·한양·잠실·반포 및 암사동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소은·정수정. (2017). 사회통합을 매개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성 및 교통편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인 가구여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9(3):135-156.
- 김수련. (1989). 「주택유형에 따른 주민특성과 근린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신수동일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제·한상일. (2008).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행정논총』, 46(4): 229~252.
- 김은경·문영민. (2016). 「수도권규제가 경기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에 미치는 영향」. 경기: 경기연구원
- 김정선·박순진. (1999). 근린관계와 지역공동체-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소형 아파트단지 과밀의 사회적 함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4』, 37-65.
- 김제국·조응래·이정임·이상대. (2005). 「경기북부지역 주요계획 현황에 대한 분석」. 경기: 경기연구원
- 김택규·정석. (2016).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활용한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웃관계 변화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3): 71-88.
- 김현진. (2010). 「커뮤니티의 상호활동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도시 근산·마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나도삼. (2002).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문화도시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연구원
- 노정민. (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소현·권영상·서한림·최이명. (2006). 「근린주구보행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적 환경요소의 계량

- 화: 주거지역의 보행친화도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변미리. (2015).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 서울연구원.
- 백수진·유석연. (2014). 주거지의 보행친화적 근린환경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계획학회지 도시설계」, 15(6): 123-139.
- 설말순. (2000). 「실버타운생활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송명규. (2009). 단지 유형별 아파트 거주자들의 커뮤니티시설 이용 및 수요도에 관한 연구: 용인동 백지구를 사례로. 「부동산학연구」, 15(2):167-183.
- 신화경·조인숙. (201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적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2):47-57.
- 윤복자·이경희·이수진. (1989). 근린생활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4):47-61.
- 우영진·최명섭·김의준. (2007).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권역간·내 지역격차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275-1282.
- 양지은. (2016).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경영·정예은·정문기. (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179-210.
- 이경환. (2009). 근린의 보행환경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건축계」, 25(7): 203-210.
- 이병호·손용비·김정훈·김을식·김도균·한근식·한승수. (2016).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 경기연구원.
- 이세규. (2015). 대도시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사회적 관계,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광주광역시 빚고을노인건강타운을 사례로. 「국정관리연구」, 10(2): 167-190.
- 이승미. (2010). 「공공문화시설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이외희·류시균·조영무·김정훈·최석현·이현우·김홍식·하봉운·김한수·임지현·유재상·오윤경·홍이슬·이다점·김재신·손주희. (2018). 「경기북부의 오늘과 미래」, 경기: 경기연구원.
- 이은혜·유계숙. (1999).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관계망,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생활과학논집」, 13:95-107.
- 이은희. (2012). 「도시 주거지역 커뮤니티 빌딩 모델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은희·이지희·김창기. (2018). 1인 생활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주관적 건강인지정도 와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비교정부학보」, 22(4):179-203.
- 이희창. (2001).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경기북부 저발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

149-184.

- 이희창·박희봉. (2005). 사회자본과 지역발전. 「한국행정논집」, 17(4): 1183-1207.
- 이희창·박희봉. (2006).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간 발전격차 분석. 「한국행정학보」, 40(4): 327-351.
- 장영호. (2015).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31개 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29(1): 99-125.
- 장동현·박수빈. (2013). 아파트 거주자의 옥외공간사용, 이웃관계, 커뮤니티의식의 상호관계에 대한 계량적 검증.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9(12): 123-130.
- 정유진. (2014).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생애주기 단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상현. (2004). 「아파트단지 외부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근린의식 형성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진미윤·이유미·김혜란. (2001).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의식과 근린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9):75-82.
- 천현숙. (200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9(1):143-172.
- 한성민. (2018). 「1인 가구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1인 가구 세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한성민·이숙중. (2018).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1): 60-85.
- 허훈·김종래. (2008). 경기북부의 사회경제학적 위상과 규제개선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전략. 「한국정책연구」, 8(1): 1-20.
- Bergel, Egon E. (1975). *Urban Sociology*. New York: Mcgrow Hill.
- Adler, Paul S. & Kwon. Seok-Woo. (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 Founeation and Application*, Boston : Burtworth Heinemann.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 Hee-Jung. & Hur, Misun.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walkability and neighborhood social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actual and perceived walkability. *Applied Geography*. 65: 112-124.
- Hollie Lund. (2002). Pedestrian Environment and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1(3): 301-312
- Jeanne M. Plas & Susan E. Lewis. (1996). Environmental Factors and Sense of Community in a Planned Tow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109-1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95~2015)

국가통계포털(kosis.kr) e-지방지표

경기연구원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gri.re.kr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5>

세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10305>

이코노미 조선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5952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52166622356080&mediaCodeNo=257&OutLnkChk=Y>

뉴스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961371>

〈부록 1〉 각 요인 및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항목	요인적재량			비고
이웃관계	도움 받음	0.910	0.008	0.065	고유값=2.318 Cronbach α =0.853
	도와 줌	0.891	0.061	0.024	
	신뢰함	0.818	0.001	0.149	
교류공간	일상용품 구매 장소	-0.026	0.625	0.159	고유값=2.181 Cronbach α =0.718
	공공기관	-0.014	0.783	0.074	
	생활문화 기반시설	0.021	0.791	0.037	
	복지시설	0.096	0.707	0.110	
보행환경	도보 이동성	0.050	0.095	0.745	고유값=2.092 Cronbach α =0.679
	주거지역 보행 여건	0.061	0.022	0.809	
	상가지역 보행 여건	0.062	0.079	0.698	
	재난 및 사고 안전성	0.066	0.181	0.570	

* KMO=0.745, Bartlett 구형성 검증유의도=0.000

이경영: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재생, 사회적 자본, 지역 간 비교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이 이웃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2018), “점유형태별 주거비부담능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theky0501@gmail.com).

정문기: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Local Land Use Choic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s in Florida, 2004),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및 도시발전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지역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부 간 관계 등이다. 최근 논문 및 저서로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2019, 교신),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이 이웃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2018, 교신),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2018, 교신), “한국거버넌스 사례집”(2016, 공동성·정문기 엮음), “한국거버넌스 사례연구”(2015, 공동성·정문기 엮음) 등이 있다(mgjeong@skku.edu).